

벤처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기업가정신을 매개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대용*, 노경훈*

*승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e-mail : westover@naver.com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mediated Corporate Entrepreneurship of Venture upon Corporate Performance

Daeyong Chung*, Kyoungsoon Roh*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요 약

최근 기업가정신 관련 선진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를 원천으로 한 자원자본인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이 벤처기업에게 다양한 자원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동태적 역량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적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171명의 벤처기업 기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에 근거한 자원 자본인 사회적 자본은 조직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벤처기업의 기업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조달관점에서 태생적인 불리함을 지니고 있는 벤처기업에 있어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의 요구를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조직기업가정신 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었다.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획득한 자원을 기업의 특정한 자원으로 구축 및 변환하는 능력을 동태적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 원천의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원 및 정보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가정신에 대한 초기의 많은 연구들은 개인 차원에서 창업가들의 행동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조직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연구흐름이 바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신사업개발·창업 부문에서 발전해 온 기업가정신의 메커니즘과 비즈니스 모델의 원리가, 순수 상업적 영역을 벗어나 대학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 다른 영역으로도 확

장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조직기업가정신을 동태적 역량, 즉 자원의 탐색과 활용, 조직의 역량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보았으며, 조직기업가정신의 선행변수로서 네트워크 원천의 사회적 자본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기업에 비해 태생적으로 신생의 한계와 자원의 불리함을 지니고 있는 벤처기업이 네트워크 원천의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각각을 국내 벤처기업가를 대상으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가설

2.1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

Carolis & Saporito[13]은 사회적 자본과 기업가 정신의 관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업

· 이 논문은 2010년도 승실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가와 연관하여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이 있는데, 정보와 영향력이 그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기업가적 기회의 중요한 요소인 정보에 접근하게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정보의 타이밍, 타당성, 질을 각각 높여준다.

또한, 기업가적 첨단기술 벤처사업에 관한 연구에서, Yli-Renko, Autio, & Sapienza[41]는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즉, 사회적 자본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식 획득과 그 이후의 지식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Tsai & Ghoshal[39]은 네트워크 관계 안에서 확립된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조직 내부의 자원 교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차례로 제품 혁신을 고무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하여, Larson[25]은 기업가적 기업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하는 호혜주의 규범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지식 획득, 위험 감수성, 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Simsek, Lubatkin, & Floyd[37] 또한 기업 수준의 네트워크가 점증적이고 급진적인 기업가적 행동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utler[12]는 타이의 제조업체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원천인 기업 네트워크가 기업가적 기업에게 기회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기업 네트워크로부터 더 많은 자원 자본인 사회적 자본을 획득한 기업은 조직기업가정신에 필요한 자원 및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자원과 정보의 확보는 제품혁신과 조직혁신, 그리고 신규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선행이론을 근거로 사회적 자본이 조직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1. 사회적 자본은 조직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사회적 자본은 제품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자본은 조직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사회적 자본은 신규사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사회적 자본과 기업성과

벤처기업의 사회적 자본은 신흥시장에서의 기업에게

자원, 정보 및 지식, 시장,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Liao & Welsch[26]는 기술 및 비기술 신생기업가를 상호비교하고, 사회적 자본이 기술에 기반한 기업가적 성장 목표 달성에 증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7]. 또한 Ahlstrom & Bruton[5]은 조직적 수준에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공식적 제도를 대신하고 벤처자본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Batjargal[6] 역시 기업가의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업파트너와의 제휴관계를 통해 획득한 사회적 자본은 기업성과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자원 자본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2. 사회적 자본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조직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직기업가정신의 영향을 정리해보면 제품·서비스의 혁신 및 시장혁신, 지속적인 조직성장 및 경제우위의 원천, 고성능·탁월한 경제적(재무적) 성과의 산출,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의 목표 조화,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기업가정신은 제품·서비스 혁신 및 시장혁신·조직이 과거보다 향상되거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산출하도록 한다[46].

또한 지속적인 조직성장 및 경쟁우위의 역할을 살펴보면, 조직기업가정신은 조직의 성장(매출 / 시장점유율)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42].

이처럼 조직기업가정신은 그에 대한 정의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시스템 내 흩어져 있는 자원(자신이 보유한 자원 및 자신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들을 창조적으로 조합하거나 결합시키는 활동을 통해 기존의 경제질서를 건설적으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조직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제품혁신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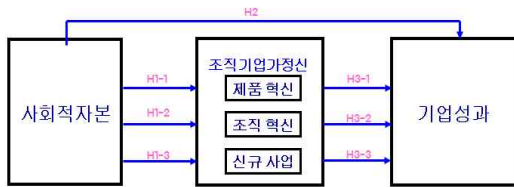
가설 3-2. 조직혁신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신규사업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벤처기업의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검증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선행이론을 토대로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 결과

4.1 가설검증

상관관계분석에 이어 본 연구에 적용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1.1 가설1의 검증결과

가설1은 사회적 자본이 조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사회적 자본은 조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들 중에서 제품혁신과 조직혁신에는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서, 신규 사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1-2는 채택되었고,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4.1.2 가설2의 검증결과

가설2는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단순회귀분석결과, 사회적 자본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4.1.3. 가설3의 검증결과

가설3은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제품혁신과 조직혁신은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신규사업투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과 가설 3-2는 채택되었고,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5. 결론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이 조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사회적 자본은 조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들 중 제품혁신과 조직혁신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서, 신규사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가적 첨단기술 벤처사업에 관한 연구에서, Yli-Renko, Autio, & Sapienza[41]가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식 획득과 그 이후의 지식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제품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사회적 자본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Liao & Welsch[26]가 기술 및 비기술 신생기업가를 비교하고, 사회자본이 기술에 기반한 기업가적 성장목표 달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17].

셋째,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조직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인별로 살펴보면 제품혁신과 조직혁신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신규사업투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사업투자의 경우 장기적 기업성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과 실패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유의성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제품혁신과 조직혁신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본적으로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다수의 검증된 연구결과[4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와 혁신의 요구를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외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조직차원의 기업가정신활동을 수행할 때만이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었다.